

본당 소식

♣ 부활시기 때 전례에서 바뀌는 부분

- “신앙의 신비여”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밀라노 한인성당 성가대 정기 연주회

- 제목 : 「Mano Nella Mano」, 손에 손잡고
-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15:30
- 장소 : 고타르도 성당 (Chiesa di San Gottardo al Corso)

♣ 모임/회의

- 사목 회의 : 5월 10일 (차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47.51€ • 교무금 200.00€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전례 성가

- 입당 : 139 (알렐루야)
- 봉헌 :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 :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99 (예수 마음)
- 파견 : 244 (성모의 성월)

전례 봉사

이번 주일(5월 3일)	다음 주일(5월 10일)
1독서 : 서인복 리노	1독서 : 이민찬 비오
2독서 : 류정연 릿타	2독서 : 윤지영 베레나
복사 : 문수빈 미카엘라 / 정아인 레나	복사 : 정아인 레나 / 강윤이 스텔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5월 3일

(백)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1독서 (사도행전 6,1-7)

- 1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4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 5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제2독서 (베드로 1서 2,4-9)

사랑하는 여러분, 4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5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6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8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거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요한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끌어 식량 낭비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 불안한 이 세계를 굽어보시어, 국가적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고통을 살피며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소서.

3.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지켜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승이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어,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며,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